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국제통상학과	이름	임XX
파견국가	프랑스	파견도시	낭트
파견대학	Audencia Business School	파견기간	23년 8월~23년 12월
귀국여부	예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오덴시아 비즈니스 스쿨은 프랑스 낭트에 위치해있습니다. 낭트 안에 오덴시아 학교는 두개의 캠퍼스가 있고 하나는 경영대(아틀란틱 캠퍼스), 하나는 무역 관련한 과가 있는 시티캠퍼스입니다. 저희학교에서 오덴시아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영대로 가고, 저 또한 국제통상학과이지만 경영대로 갔습니다. 오덴시아 경영대는 낭트내에서도 인정받는 학교로 재학생들 또한 매우 학구열이 높습니다. 학교는 교환학생들이 잘 적응할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설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같아요.</p>
2023-2학기 수업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p> <p><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1. Strategic Management</p> <p>-기업의 경영전략에 대해 배웁니다. 성적은 한학기에 두번씩 보는 객관식 시험과, 최종 기말고사(서술형), 최종 그룹발표, 출석점으로 산정됩니다. 이 과목 교수님은 수업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넘치셔서 학생들에게는 다른 과목보다 빠르게 느껴질수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시험도 많이 보기 때문에 열심히 참여할수 있는 자신이 있는분들만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과목들보다도 영어를 잘해야 들을수 있는 수업입니다. 기업의 전략들에 대해서 긴 에세이를 읽고 조원들과 중간중간 활동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뽀뽀한 피피티를 다 이해하고 시험을 봐야합니다. 다른 과목보다 빠르게 느껴졌지만, 마쳤을때 제일 큰 보람을 느끼고, 정말</p>

무언가를 배웠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학점대체인정을 위해 이 수업을 꼭 들어야했지만, 부담없이 수업을 듣고 싶으신분들은 다른 과목을 추천합니다.

2. Managing and leading a team

HRM, 인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오덴시아에서 들었던 수업들중 제일 부담이 없었던 수업입니다. 적극적인 수업을 안좋아하는 저같은 분들이라면 이 수업을 추천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듣는걸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수업은 한국 수업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수업에 와서 앉아서 교수님 수업을 듣고, 최종기말고사 하나로 성적이 산정됩니다. 오덴시아의 모든 기말고사들은 거의 객관식 기말고사는 없습니다. 주제문제들을 던지고 영어로 에세이를 써야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이 과목도 서술형 기말고사였습니다. 조별 프로젝트는 따로 없지만, 2주일에 한번 정도에 걸쳐 조를 이뤄 수업의 절반정도를 한가지 주제로 토론을 하게 합니다. 성적에 들어가진 않지만, 외국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시간이 몇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덴시아에서 제일 부담없이 들었던 수업이기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3. Digital Marketing

본교에서 배우는 디지털마케팅과 비슷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되어 부담이 없습니다. 저는 본교에서 한번 디지털마케팅 수업을 듣고 왔기에 쉽게 이해했고, 들어본적 없으신분들도 아마 수월하게 들으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적은 최종그룹발표 하나와 최종기말고사로 산정됩니다.

4. French

프랑스에 교환학생 오는 분들이라면 프랑스어 수업은 기본으로 수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추천드립니다. 처음 레벨테스를 본 후 수준별로 반을 나누지만 웬만한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거의 다 초급반으로 넣어버려서 기본부터 배울수 있습니다. 전공과목이 아니라 언어과목이기 때문에 이 수업 또한 부담없이 들으실수 있습니다. 성적은 중간 구술시험, 중간 쓰기 시험, 최종 기말고사로 진행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반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본다고 하는 반도 있었습니다. 반마다 학생들 의견을 수렴하여 다른 방식으로 시험을 유동적으로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오덴시아의 모든 교수님들은 인종차별 없이 모든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p>들어주고 존중해주려고 노력하십니다. 특정 몇과목의 교수님들이 인종차별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어 걱정했지만, 저는 한국에 있는 교수님들보다 좋았을 정도로 모든 분들이 수업에 열정적이고, 공평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들어주십니다. 프랑스 교환학생을 온다면 다양한 학교 후보들 중 꼭 오덴시아를 추천드리고 싶을 정도로 모든 수업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p>
<p>프로그램 운영</p>	<p>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첫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여 교환학생들이 서로 친해질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미션을 수행하고, 저녁에는 술집과 클럽을 가면서 재밌게 놀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제공해줍니다. 한국의 클럽문화가 아니기에 부담없이 갈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클럽은 오덴시아와 일주일에 한번씩 제휴 했기에, 매주 화요일이 되면 공짜로 가서 학교 학생들과 즐겁게 놀수 있습니다. 학교생활 하면서 모르는게 생기면 담당 코디네이터에게 바로 물어볼수 있습니다. 담당 코디네이터님은 어려운 일이 생길때마다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을 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교환학생들에게 1:1 버디 프로그램을 진행해주는데, 이걸 첫날 오리엔테이션때 꼭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교환학생에 와서 제일 친해진 프랑스 친구가 이 버디이고, 집에 초대 받아서 저녁식사를 하거나, 프랑스 맛집을 같이 데려다준다거나 했던게 큰 추억으로 남아서, 아마 버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프랑스 친구를 사귀고 프랑스 현지 문화를 더 잘 즐길수 있을 것 같습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	-----------

<p>날씨</p>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 8월말부터 12월 말까지 낭트에 머물렀습니다. 낭트는 9월~10월까지 매우 맑지만 11월과 12월은 흐린날이 자주 있고 비가 많이 와서 우산을 꼭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그렇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비가와도 우산을 거의 안쓰고 다녀서 지내다보면 똑같이 우산을 안쓰고 그냥 맞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도 출국전에 꼭 우산을 챙겨가세요. 프랑스 우산 물가가 비쌉니다.</p>
<p>안전</p>	<p><i>현지 안전 상황</i> 낭트는 제가 프랑스의 대전이라고 부르고 다녔을 정도로 평화롭고 모든 사람들이 친절합니다. 파리에 안가고 낭트로 온게 행운이라고 할 정도로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저희는 초반에 학교행사에 자주 참여해서 매일 새벽 세시에 집에 돌아올정도로 밤늦게 다녔는데도, 안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프랑스에서 밤늦게 돌아다니지는 마세요! 항상 조심, 또 조심하세요. ㅎㅎ그리고 가끔 파리에서 시위가 일어나거나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때도 저희는 그런 일이 생긴것도 모를 정도로 낭트에서 아주 평화롭게 잘 지냈습니다.</p>
<p>숙소</p>	<p><i>학교기숙사(o)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i> <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 저희는 crous라는 국립기숙사에 살았습니다. 제 기숙사는 Bourgeonniere로 학교에서 걸어서 15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제 친구는 비올레뜨 기숙사에 살았는데, 거기는 걸어서 학교까지 10분정도였습니다. 제 기숙사는 바로 앞에 큰 마트가 있어서 필요한게 있을때마다 바로 가기 너무 좋았고, 트램역도 바로 앞에 있어서 시내로 갈때도 매우 편리했습니다. 방도 1인실인데 안에 싱크대와 화장실도 다 있어서 웬만한 곳보다 살기 좋았어요. 순천향대 기숙사 쓰다가 오덴시아 기숙사 쓰면 정말 천국이에요. 꼭 crous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그렇지만 경쟁률이 심하고, 신청하는 절차 자체도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꽤나 골머리를 앓겠지만.. 한번 합격하면 프랑스살이가 편해집니다. 안붙여줘도 계속 메일 보내면서 즐라보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붙여줘요.</p>

<p>식사</p>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외부식당 () 직접 요리 ()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프랑스는 외식 물가가 비싸서 웬만한 식사는 직접 해먹는게 좋아요. 저는 쌀과 파스타를 사서 밥을 해먹거나 파스타를 해먹었어요. 처음에는 요리를 안하고 살다가 몇 개 만들어먹으니까 금방 늘어서 아마 잘 헤드실수 있을거예요. 그리고 crous restaurant라는 학생식당이 학교 옆에 있어요. 한끼에 3.5유로에 먹을수 있어서 한끼는 꼭 여기서 해결하시는걸 추천드려요. 다양한 메뉴를 먹을수 있어서 좋았습니다.</p>
<p>교통</p>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기숙사 바로 앞에 있는 2번트램을 타면 3분만에 갈수 있어요. 걸어서도 15분만에 갈수있어서 너무 좋은 위치였습니다. 낭트 시내는 꼬맥스인데 트램타고 20분가면 도착해서 저희는 적어도 이틀에 한번씩은 다니면서 이것저것 사고 놀고 그랬습니다. 꼬맥스에 정말 없는게 없어서 공강시간에 놀기 좋아요.</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p>항공료</p>	<p>150(프랑스-한국 왕복)</p>	<p>키세스 국제학생증 사이트 이용해서 저렴한값에 갔어요. 직항은 아니고 핀란드 경유였습니다.</p>
<p>Fees</p>	<p>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p>	<p>이거말고도 프랑스 처음 입국해서 돈나갈일이 많으니 정착비용으로 현금 포함 많이 많이 챙겨가세요. Tgv max라는 기차 0원권 꼭 끊으시길 추천드려요. 한달에 79유로만 내면 어디든지 0원으로</p>

	<p>출국비용 total</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비자 비용 2.아포스티유 비용(공증까지) 3.보험+집보험 비용 4.항공권 150만원 5.tgv max 비용 79유로 6.매달 usim 비용 20유로 7.기숙사 보증금 50만원 8.기숙사 월세 50만원 9.매달 생활비 100만원 10.교통비 월간 5만원 11.여행비 한 나라 당 50만원 12.정착비용 5~60만원(이런저런거 사는것들, 이케아 가면 씬) 13.체류증 비용 	<p>갈수 있습니다 ~</p>
보험료	<p>인슈플러스 골드 비용 + adh 집보험</p>	<p>보통 거의 다 인슈플러스 하길래 인슈플러스로 했습니다. 쓸일은 별로 없지만 꼭 보험 가입하시구 가세요. Adh는 기숙사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집보험이에요. 다른 쉐어하우스도 요구하니까 계약할 때 하라고 하면 가입하시면 됩니다.</p>
숙소	<p>매달 50만원</p>	<p>다른 쉐어하우스는 기본 80만원이어서 crous 신청했는데, 저렴하게 잘 이용한 것 같습니다.</p>
식비		
교통비	<p>한달 3~4만원 정도</p>	<p>트램 월간권 비용입니다. 월간권 구매하면 무제한으로 이용할수 있어요.</p>
책값	<p>0원</p>	<p>Ppt 수업이어서 아이패드랑 노트북 챙겨가시면 돼요. 책값은 따로 없습니다. 전공책 필요하면 도서관에서 다 대여 가능합니다.</p>
기타1	<p>한달 생활비는 100만원 내에서 생활했습니다.</p>	
기타2	<p>한나라 여행 비용 - 50만원 정도</p>	

합계	<p>저는 프랑스에서 지출한 돈을 일일이 기록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같이 오덴시아 간 본교 친구들이 상세하게 기록했으니 다른 친구 파일 참고해주세요~</p> <p>대략적으로 말하자면, 한달 생활비는 한국에서 100만원씩 받았고, 그 안에서 생활 가능했습니다.</p>
----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프랑스어를 꼭 공부하고 가시길 추천드려요. 프랑스에서는 사람들이 영어를 은근 잘 못써서, 프랑스어를 하지 않으면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마트 장보는것부터, 교통까지 모든 것이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는 기본적으로라도 공부하고 가시고, 영어는 정말 유창하게 할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시고 가셔야해요.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데 한국에서도 대학수업 어려웠던 사람이 영어로 수업하려니까 이해를 잘 못할때도 많았어요. 영어 유창하게 할 정도 아니면 교환학생 그냥 안가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생활하시거나 소통하시면서 많이 힘드실거예요. 미드같은거 많이 보시면서 실력 늘리시는게 좋은 것 같아요. 큐브국 챙겨가시는거 추천드려요. 초반에는 적응하면서 어떤 음식 해먹으면서 살지도 잘 모르고 프랑스 음식이 초반에는 안맞으니 큐브국 챙겨서 먹는게 좋아요. 쌀은 프랑스에 많이 파니까 괜찮고, 전기밥솥도 짐 많으면 안챙겨셔도 돼요. 다 냄비밥으로 잘 해먹습니다. 신발이랑 옷도 프랑스에 다 자라, h&m 많으니까 굳이 무겁게 많이 안챙겨오셔도 돼요. 대신1인용 전기장판 꼭 챙겨오세요. 파는데도 없고, 겨울에 엄청 추워요. 유심은 free라는 통신사에서 한달에 한번씩 구매했습니다. 데이터도 완전 잘터지고, 번거롭게 orange 통신사 쓰는것보다 그냥 한달에 한번씩 free 에서 사세요. 유로 현금 가져가시는 것 추천드려요. Revolut 라는 프랑스 계좌 개설하세요. 프랑스 오시는분들 caf 받으려고 이런저런 서류 준비해오시는데.. caf 받기가 너무너무 번거로워요. 골머리 앓기 싫으신분들은 그냥 애초에 맘편히 포기하세요. 받고싶으신분들은 서류 준비하셔서 caf 신청하시면 되지만 저는 서류 다 준비해갔는데 결국은 못받았어요. 절차도 번거롭고, 쉽게 안주는것같아요.. 그리고 외로움 많이 타시는분들은 기숙사말고 플랫에 사시는거 추천드려요. 프랑스에서 만난 다른 한국 친구들은 같은 대학교 애들끼리 쉐어하우스에 살던데 너무너무 재밌어보이더라구요. 저는 기숙사가 성향에 더 맞았지만 가끔가다 프랑스생활하면서 외로워질 때 있는데 그때 쉐어하우스 살았으면 좋았기도 했겠다 라는 생각 하긴 했어요. 여기 교환애들도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기숙사보다는 더 플랫에 살더라구요! 자신의 성향을 잘생각해보고 결정하시길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한번 적응하고나면 너무너무 행복한 낭트생활이었습니다. 프랑스 교환학생 고민하시는분들, 꼭 audencia로 오세요. 다시 한국오기 너무너무 싫었어요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서로 존중해주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요. 어렵고 힘든 일 있을때마다 프랑스 사람들의 도움 많이 받고 해결했습니다. 인종차별도 이민자 아니면 별로 겪어본적 없어요. 그렇지만 교환학생이라는게 혼자 해외로 가서 오랜시간 지내는거기 때문에, 간절하지 않으신분들이나 고민되시는분들은 아예 시작하지 않는걸 추천드려요. 간절했던 사람도 와서 많이 힘든데, 간절하지도 않고 고민정도 되는분들이 오시면 어려운일 있을 때 이겨낼 힘이 없어요. 영어, 프랑스어 많이 준비해오시고 돈 많이 준비해오시면 살기 편해요. 당연한거지만 중요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비 많이 받으시거나 오기전에 알바하셔서 여행 자금도 많이 준비해오세요. 낭트에 한식당 많으니까 한식 그리우시면 거기 가시면 됩니다. 향후계획은 졸업하거나 졸업유예한 후에 관세사 시험 준비하려고 합니다. 처음 프랑스에 온 이유는 프랑스계 무역회사에 한번 도전해볼까? 프랑스 와서 프랑스어라도 늘릴까? 라는 생각이었지만, 사실 한학기 프랑스 교환학생으로는 프랑스어가 그렇게 늘진 않아요. 영어가 는다면 모를까.. 그래도 너무너무 소중한 경험을했고, 교환학생에 오지 않았다면 인생에서 한번도 못 겪을 추억을 쌓았습니다. 간절하게 오고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교환학생 꼭꼭 추천드릴게요.

낭트에 스케이트장도 있는데 재밌으니까 심심할 때 가셔서 스케이트도 타세요. 평일인가에 가면 학생할인으로 싸게 갈수 있어요. 교환학생이라서 학교에 재학생들처럼 자주가지는 않으니 공강시간마다 해외여행 자주자주 다녀오세요. 교통비가 정말 저렴해서 부담없고, 숙소도 호스텔 쓰면 1박에 2~3만원 정도밖에 안해요. 학교생활보다는 여행다니는게 더 재밌을 정도로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9월달에 학교생활 시작 별로 안했을 때 여행 안다니게 큰 후회일정도예요. 시작부터 많이많이 다니시길 추천드릴게요. 학교생활 전체적으로 시작하면 시간내서 가셔야 합니당 ㅠ

쓰고싶은게 많지만 생각이 안나서 일단 여기까지만 쓸게요! 혹시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minseoyul02@naver.com로 메일주세요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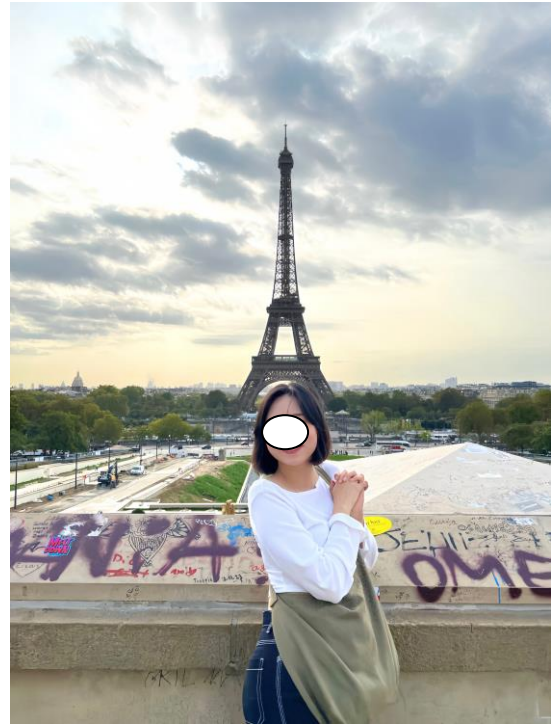
낭트 크리스마스 마켓



외국인 친구들 집 초대



버디친구들과 스케이트장



파리여행



기숙사 일층에서 이강인 응원하기



Crous restaurant 학식